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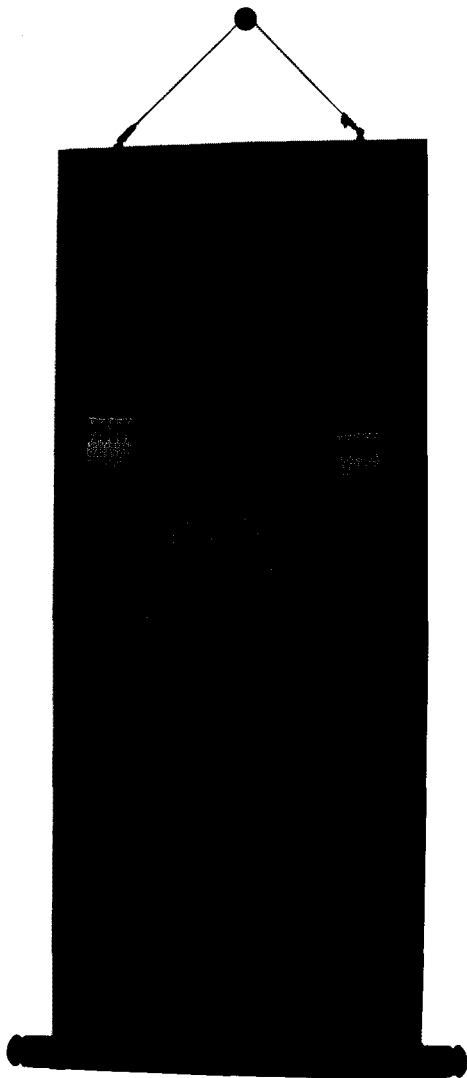
2011유네스코직지상 시상식

올해 수상국 ‘호주 국가기록원’ 선정 1377명 시민대합창 축가로 문여는 시상식

제 4회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이 9월 2일 오후 2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인터넷으로 모집한 1377명의 시민 대합창단 축가로 문을 열어 더욱 뜻깊게 진행된다.

올해의 유네스코 직지상은 유네스코 회원국 193개국과 준회원국 7개국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23개국 30개 기관, 개인이 신청한 가운데 ‘호주 국가기록원’이 인류 기록보존을 위한 탁월한 프로그램 개발로 전 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제공한 공로가 인정되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호주 국가기록원’은 9월 2일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미화 3만 달러)을 수상하게 된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2011직지상 상장. 한지장·배접장 등 무형문화재들이 수개월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연계행사로는 9월 1일 오후 7시 경축음악회 / 9월 2일 오전 9시 직지사랑 백일장 대회, 오후 2시 한국의 상황특별전, 오후 5시 세계문자서예대전입상작 전시회, 오후 6시 축하 리셉션, 오후 7시 CJB 직지음악회 / 9월 3일 오전 9시 청주읍성 큰잔치, 오후 2시 한국멀티미디어 학회 학술회의, 오후 4시 거리아티스트 공연, 오후 7시 청주읍성 역사체험극 등 다양한 행사가 청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행사로써 검소하면서도 격조 높은 국제적인 시상식으로 열어 시민의 자긍심을 한층 드높임은 물론, 직지의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유네스코 회원국 193개국 등 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 녹색수도 청주를 지식문화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와 유네스코는 1377년(고려 우왕 3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직지를 인쇄하여 삶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 오늘날 인류 문명 발달의 밑거름이 되게 한 우리 선조들의 창조정신을 기억하고 직지의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직지상을 개최해오고 있다. 시상금 3만달러는 한국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매 2년마다 기록유산의 보전이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2011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기관인 호주 국가기록원

1960년에 설립된 호주 국가기록원은 디지털 보존분야에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방대한 출판물을 통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문가와 대중에게 제공하였고, 디지털보존을 위한 개방형 자료도구(open source tool)와 연구결과를 세계 보존 공동체와 공유하였다. 또한, 수세기동안 유럽에서 사용된 잉크(iron gall ink)로 쓰인 문서의 보존에 있어 혁신적인 협력작업을 수행해 왔다.

호주국가기록원은 시상금 3만달러를 기록유산보존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존분야의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한지 두루마리형 직지상장

이번 시상식에 사용될 직지 상장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17호 안치용 한지장이 국산 닥나무 껍데기를 벗겨 벗집과 콩대 태운 잣물로 삶아 깨끗하게 정제작업을 거친 뒤, 두드려 건조하고 자연표백을 하여 이를 울이 풀어 한지를 뜬 후 곡물을 이용한 코팅과 도침(다듬이질) 과정을 거쳐 인쇄가 가능한 표면이 매끈한 한지를 생산해 냈다.

상장 디자인은 청주대학교 문화산업디자인혁신센터 이길환 부센터장이 유네스코의 공식문양과 서식을 기본으로 직지의 정신이 담긴 한자로 고와 영문로고, 한글을 조합해 배경글씨를 만들고, 바탕에는 황금색으로 품위를 높이며 그 위에 직지상 엠블렘을 얹은 후 상장문안을 넣었다. 여기에다 현대 인쇄기를 이용해 인쇄를 한 결과 색감과 선명도가 뛰어난 전통한지 상장을 만들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7호 홍종진 배첩장이 직지 브랜드 로고를 사방연속 무늬로 염색한 실크 원단을 사용한 비단 뒷면에 배첩용 한지를 몇 년 삭힌 풀을 칠하여 붙이고 사면에 무늬비단을 배첩한 뒤 말리고 물 뿌리기를 되풀이 했다. 7일 정도 지나 숨쉬는 천연상태가 되어 붙인 부분이 습기와 건조에 무관하고 뜨거나 뜨지 않는다.

밑에 무게 중심을 잡는 나무봉을 넣고, 위에는 비단 수술과 아래에는 옥장식 매듭을 단 한국 전통양식의 교지(두루마리)형으로 가로 40cm

세로 120cm 크기로 제작했다. 직지 상장은 한지장과 배첩장 등 우리고장 무형문화재들이 수개월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또 하나의 작품으로, 수상기관에서 전시되어 우리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청주시는 밝혔다.

직지상 시상식 축하위한 1377명의 시민합창단원

올해로 제4회째 맞는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축하공연을 위하여 청주시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1377명 대합창단원 모집을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한 결과 1415명의 시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 신청이 완료됐다. 1377명 대합창단원들은 '직지의 노래', '내 고향 청주', '고향의 봄' 등의 축하를 불러 그 날의 행사를 더욱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합창할 노래 3곡은 청주직지축제 홈페이지(www.jikjifestival.com)에 악보와 합창 동영상으로 게시하여 평소에 시민들 각자 연습을 하도록 배려했다. 또한 9월 2일 오후 1시 30분에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최종 리허설을 갖은 후, 오후 3시에 열리는 2011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국 호주 국가기록원 시상식에서 청주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과 함께 협연 청주시민, 청원군민 1377명이 이룬 감동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무엇보다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도에 직지가 인쇄된 것을 기념하는 일이라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의 자부심이 크기 때문이다. 1377년 전 우리 선조들은 세계기록유산인 금속활자로 직지를 인쇄하여 삶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 오늘날 인류 문명 발달의 밑거름이 되게 했다. ☞

2011유네스코직지상 시상식 주요행사 일정표

구분	시간	행사명	장소
9. 1 (목)	19:30	경축음악회(전야제)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09:30	직지사랑 백일장 대회	고인쇄박물관
9. 2 (금)	14:00	한국의 장황특별전 (기간 : 9. 2 ~ 10. 30)	고인쇄박물관
	15:00	1377명 대합창단 축하공연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7:00	세계문자서예대전입선작 전시 (기간 : 9.1 ~ 4)	
	18:00	수상국 축하 리셉션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
	19:30	CJB 직지음악회	중앙공원
9. 3 (토)	09:00	청주읍성 큰잔치	중앙공원, 성안길
	14:00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회의	예술의전당 대회의실
	16:00	거리아티스트 공연	철당간, CGV, 로데오거리
	18:00	학술회의 리셉션	예술의전당 파도스
	19:00	청주읍성 역사 체험극	철당간